



산수유리사이클, 국립군산대에 발전기금 기부

국립군산대학교(총장 김강주)는 지난 20일 (주)산수유리사이클(대표이사 최영재)이 대학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국립군산대학교 김강주 총장, 유보선 부총장 조혜영 교수평의회회장을 비롯해 (주)산수유리사이클 최영재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발전기금은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최영재 대표이사의 깊은 뜻이 담겨 마련되었다.

국립군산대학교는 이번에 기부받은 발전기금을 기부자의 뜻에 따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및 대학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에 소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스포츠 특화 도시 전북’ 알렸다

전북 K-Food 스포츠 외교 홍보단, 이집트 카이로서 국제 홍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21일 K-Food와 스포츠를 결합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앞세워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국제 스포츠 특화 도시 전북’ 알리기에 나섰다.

도는 현지시간 17일부터 이날까지 전북 K-Food 스포츠 외교 홍보단이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전북을 알리는 국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글로벌 스포츠 특화 도시를 지향하는 전북의 경쟁력과 K-Food·스포츠를 연계한 전북형 콘텐츠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중동·아프리카권 국가와의 스포츠·문화 교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와 K-Food산업연구소 관계자들로 구성된 홍보단은 현지에서 △전북 브랜드와 도시 매력 알리기 △전북 스포츠 K-Food △국제 스포츠 대회 개최 경험 등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홍보단은 같은 기간 주이집트한국문화원과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개최한 ‘2026 K-Food Academy’ 프로그램을 통해 이집트 유명 셰프와 현지인들에게 전북의 음식문화와 스포츠 콘텐츠를 함께 소개하며 큰 관심을 끌었다. /이만호 기자



또한 홍보단은 22일 세계 최대 규모의 고고학 박물관인 이집트 대박물관(Grand Egyptian Museum)을 방문해 추가 홍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도는 이번 활동이 중동·아프리카권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전북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와 국제 스포츠 네트워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집트의 한국 선호도는 94.0%로 조사 대상 26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러한 우호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스포츠와 K-문화 콘텐츠를 연계한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장수군로컬JOB센터, 일자리 창출 협의체 회의

장수군로컬JOB센터(센터장 주성덕)는 지난 20일 지역 내 고용 활성화와 기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일자리 창출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장수군청과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을 비롯해 관내 유관기관 및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고용 현황을 공유하고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장기근속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방향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사업 운영 방안 △구인난 및 인력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 대책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재직 근로자를 위한 복지 확대와 고용 유지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기업체와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소통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각종 지원사업과 고용 정책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현장의 의견을 상시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의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일자리 활성화와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함께 체결됐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지역 기업과 구직자 간 연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장수=고관호기자



무진장 농어촌공, 수질환경 보전회 열어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21일 지사 회의실에서 지역주민의 환경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수질환경보전회를 개최하고, 장수군 천천저수지에서 환경정화 행사를 실시했다.

수질환경보전회는 지역사회와 저수지 수질관리 문제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이다. 이날 회의에는 지사 직원, 지자체, 환경단체,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 11명이 참석하여 주제별 수질관리 역할 분담조정에 관한 논의를 하고 수질오염 현황과 저감대책 및 저수지 수질보전을 위해 상호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오후에는 장수군 의용소방대와 직원 36명은 천천저수지 호수내 방치된 각종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환경정화 활동도 실시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보호 아동·자립준비 청년 디지털 역량 강화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 AI 한바퀴 프로그램' 기부금, 전북지립지원전담기관에 전달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 나경균)는 21일 공사 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립지원전담기관(이하 지립지원전담기관, 관장 유기용)에게 지역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새만금 AI 한바퀴 프로그램'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전달식은 보호아동부터 자립준비청년까지 생애주기별 AI·디지털 활용 역량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누구나 정보통신기술(ICT)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 역량, 기회 제공 등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디지털 포용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공사 나경균 사장, 공사 백재현 사업관리본부장, 지립지원전담기관 유기용 관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기부금은 총 2,700만원 규모다.

기부금은 △보호아동 10명에게 생생형 AI 유료 프로그램과 비전훈련비(1인당 100만원)를 지원하는 'AI Basic' 사업(1,200만원), △자립준비청년 20명을 대상으로 AI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 우수자 5명에게 희망 기자재를 전달하는 'AI Plus' 사업(900만원),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20명을 대상으로 공사 임직원인 멘토로 참여하는 합동 멘토링 사업(600만 원)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정서적 지원을 병행하는 통합형 사회공헌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사 나경균 사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은 미래 사회에서



개인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역량'이라며,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계층 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새만금이 디지털 포용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임실군, 산민 이용 선생에 공로패 전달

임실군은 지난 20일 임실군수실에서 한국 서단의 원로이자 지역 문화 발전에 헌신해 오신 산민 이용 선생께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용 선생은 높은 예술적 경지와 깊은 학력으로 한국 서단의 시표가 되어 왔으며, 특히 임실군에 대한 특별한 애정으로 40여 년간 군민들의 문예활동 증진과 향토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임실군은 이번 공로패 수여를 통해 선생의 업적과 공로를 기리고, 군민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산민 이용 선생께서 보여주시는 헌신과 열정은 임실 문화의 뿌리를 더욱 깊게 하고,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큰 힘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임실군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기자

남원시, 노인 의료복지시설 집중안전점검

남원시가 재난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강도 민관합동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



남원시는 2026년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관내 주요 의료복지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건축, 전기, 가스, 소방, 토목 등 사회안전망 전반을 진단하는 정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광덕원 △효성의집 △남원행복의집 △남원소망의문 △포도원 등 총 5개소로,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입소 어르신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해 화재나 건축물 붕괴 등 유사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단순한 시설물 점검을 넘어 실질적인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고강도 예방 조치에 초점을 맞췄다.

남원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위험 요인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예상이 수반되는 보수·보강 사항은 신속히 재원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금동 지사협, '냉장고를 부탁해' 추진

남원시 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1일 2분기 정기회의 이후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1인 저소득 취약계층 30가구를 대상으로 월 1회 반찬 지원사업인 '냉장고를 부탁해' 5월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금지면 딸기 농가(농장주 김순주)의 따뜻한 기부를 시작으로 추진, 농가가 정성껏 재배한 딸기를 기부해 협의체 위원들과 동 맞춤형 복지지원들이 딸기 수확(60kg)에 참여해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협의체 위원과 직원들은 시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딸기값으로 가공해 고소한 우유식빵과 함께 대상 가구에 추워탕 파우치 3개를 추가 지원해 취약계층의 든든한 한끼를 채워주며 건강한 식생활을 만들어 주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소통·회복·연대의 장... 여경협 전북지회 리더십스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가 여성기업인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3차 리더십스쿨 및 2026년 5월 월례회'를 개최하며,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 여성 리더들의 성장과 연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지회(회장 소정미)는 지난 20일 오후 전주 추후438에서 회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여성기업인의 경영 역량을 높이고 회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북재강중소벤처기업청 장상만 청장을 비롯해 노근자·배준수·송기순 고문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는 소정미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됐으며, 이어 장상만 청장의 축사와 고문단 인사말이 이어졌다. 참석자 단체사진 촬영 후 본격적인 리더십스쿨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제3차 리더십스쿨의 핵심 프로그램에서는 월드빈 조명환 회장이 특별강연자로 나서 변화의 시대 속 여성기업인의 역할과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조 회장은 나눔과 상생, 사람 중심의 경영 철학을 중심으로 국제구호 활동 경험과 성장 과정을 공유하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동기부여를 전달했다. 특히 후원발전 아동에서 국제구호기관의 대표로 성장한 개인적 경험은 여성기업인들에



게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 전주여성인력센터가 여성기업인을 위한 지원사업과 연계 프로그램을 소개했으며, 스트레스 관리 특강도 함께 진행돼 기업 경영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직 내 긍정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이 공유됐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강의 형식을 넘어 여성기업인들이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교류의 장으로도 기능했다.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소통 시간을 통해 경영 현장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공감과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오상근 기자

김제휴게소, '박물관 in 휴게소' 운영

한국도로공사 전북북부개발사업추진본부 김제휴게소에서 지역 박물관 전시를 연계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박물관 in 휴게소'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전북박물관미술관협의회와 협력해 추진되며, 우수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도 접근성과 인지도 부족으로 관람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박물관을 알리고 휴게소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는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김제휴게소(새만금 방향)에서 진행되며, 첫 번째 특별전으로 부안청자박물관 소장품 전시가 오는 6월 12일까지 운영된다. /오상근 기자

이번 특별전에서는 청자 잔과 주자 병, 장고 등 부안청자 박물관 대표 소장품 22점이 전시돼 휴게소 방문객들이 지역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주말에는 도예가와 함께하는 도자기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돼 관람객들이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관람객 참여를 위한 연계 이벤트도 마련됐다. 김제휴게소 박물관 in 휴게소를 관람한 뒤 부안청자박물관을 방문하면 관람료 무료 혜택과 청자 만들기 체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박물관 관람객이 전북본부 관할 휴게소를 이용할 경우 음료 무료 제공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오는 12월까지 한 달 단위로 참여 박물관과 전시물을 교체해 운영된다. /오상근 기자



고창경찰,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지점장에 감사장

고창경찰서(서장 태기준)는 21일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해리 신한은행 지점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지난 4월 30일 은행을 찾은 고객이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목격하고 고객에게 다가가 여러 차례 현금 출처에 대해 물었고, 고객은 "자신이 필요한 곳에 쓸 것이니"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이 이상하여 재발의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고객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전날 "저금리 대출해주겠다"며 악성앱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고 악성앱을 제거 차단하여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막아냈다.

태기준 고창경찰서장은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홍보활동도 계속 펼치겠다"라며 "앞으로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